

AI시대 지식재산처 온라인센터 ‘무늬만 원스톱’

5개 분야 중 ‘상표권 침해’만 가능해
권향엽 “신고 시스템 못갖추나” 질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운영 중인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가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한 ‘무늬만 원스톱’ 센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는 ‘지식재산침해신고’와 ‘부정경쟁행위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지식재산침해 신고에는 ▲상표(위조상품) 침해 ▲특허 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이 해당한다. 부정경쟁 행위는 ▲타인의 상표, 상호와 유사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 ▲거짓 원산지 표기 ▲타인의 상품 사칭 ▲타인이 개발한 상품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무단 사용 ▲유명인 초상 무단 사용 등 13개 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바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유일하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이 가능하다.

반면 ▲특허 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 신고 카테고리에서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 방법으로는 방문·우편·이메일 등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지식재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침해 ▲영업비밀 침해 신고자의 경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콜센터로 연락해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먼저 안내받아야 한다.

이후 신고자는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지에서 자신의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에 들어가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이메일·우편·방문 신고가 모두 가능한 상표권 침해 사건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신고된 1만 5천57건 중 1만4천52건(96.6%)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우편 315건(2.1%), 이메일 126건(0.8%), 방문 6건(0.0%) 순이다.

이메일·우편·방문 신고가 가능한 부정경쟁 행위 사건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04건이 신고됐다. 지식재산처 답변에 따르면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신고되고 있으며 우편·방문 신고는 연간 5건 미만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

하면 온라인을, 이메일 신고가 가능하면 이메일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권향엽 의원은 “AI시대에 첨단기술을 다루는 지식재산처가 온라인 신고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며 “이메일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고는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식재산처는 모든 사건 유형의 신고 방법 안내를 한 곳에 모아놨다는 의미로 ‘원스톱’을 썼다고 한다”며 “상담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한 번에’ 막힘없이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2025 광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인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APEC CEO 서밋 행사장에서 경찰특공대와 경찰견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PEC CEO 서밋, 환영만찬으로 막 올라

정부·기업인·외교사절 등 1천명 참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이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최고경영자) 서밋’이 28일 공식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저녁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APEC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대한상회가 주관한다.

경주를 찾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CEO 서밋 본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에는 정부와 국내의 기업인, 외교사절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한 데 이어 마티어스 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이먼 칸 구글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이철우 도지사, 박승희 사장 등이 건배제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스탠딩 형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음식과 음악을 즐기며 각국 주요 인사 및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 메뉴는 경주 한우, 동해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 전통음식부터 할랄·비건 음식까지 각국 식문화를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만찬주로는 경북산 와인 중에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우리술 품평회, 대한민국 주류 대상 등 국내의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제품이 선정됐다.

APEC CEO 서밋은 이날 환영만찬에 이어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Bridge, Business, Beyond (3B)’를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수온도 상승, 원전 10년내 가동 중단 위기

한빛원전 2031년께 ‘설계 해수온도’ 도달

조인철 “전국 원전, 종합대책 필요” 지적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 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 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도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 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 가동으로 겪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표층 수온은 1988년 관측 이후 지난 57년 동안 1.8도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 상승량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부 원전은 ‘설계 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보다 앞당겨지면서 수명 단축 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 신월성 2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은 2054년이지만 해수온도는 2030년에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수명이 24년이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교환기 등 냉각 설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월성과 한빛을 포함한 전국 모든 원전에 대한 종합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박미정 시의원, 지원배수지 증설 상황 점검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 2)이 지난 27일 동구 지원1동 마을사랑채에서 열린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지원배수지 증설공사(2022-2027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비산먼지·교통 혼잡 등 환경 문제 대응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설 방음벽 높이를 4m에서 6m로 상향하고 출퇴근 시간대 신호수를 집중 배치하는 등 소음·교통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배수지 증설공사는 광주 동구 소태·지원 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1만7천㎡ 규모다. 2026년 착공,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변은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원호
220603-중-139779